

주현절 후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3년 1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 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 번 시편 8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20:1-17</b>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사랑 안에서”	찬양대
설 교 Sermon	<b>“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입례”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임직식 Installation of Church Officers	(임직순서지 참조)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산을 버리고” (통일 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답지 못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와, 행함 없는 믿음과,

그릇된 신념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 2:12, 시 25: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2-3**)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NIV, **Exodus 20: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9 (주일)	1/30 (월)	1/31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창30	창31	창32	창33	창34	창35,36	창37
본문	막1	막2	막3	막4	막5	막6	막7
	예6	예7	예8	예9,10	욥1	욥2	욥3
	롬1	롬2	롬3	롬4	롬5	롬6	롬7

수/요/ 찬/양/집/회 선/교/ 교/육/ 특/별/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1오후7:30)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자” (요삼1:7-15)
선교/교육 특별기도회 (2/4 오전6:30)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사52:6-10)

지난 주일(1/22) 말씀 – Matthew 25 Church (3)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마태복음 25:31-46)

(오늘) 본문은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또 다른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목자가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장차)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장차)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분짓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또한 “평소에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진실성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의인과 악인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인은 자신이 베푼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악인도 자신이 행한 악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면에) 자신이 행한 악행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항상 되물어보며,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기를 항상 애쓰며,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하여, 장차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